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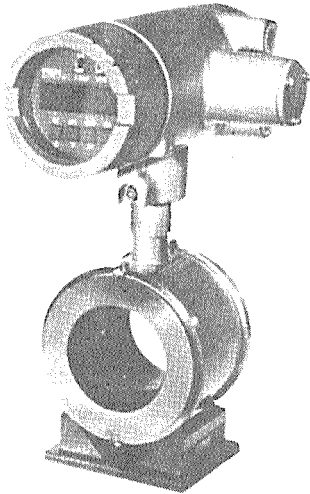
신제품소개

Compact 電磁流量計

□ 金星計電

TEL : 273 - 4140/59 (3542, 3537)

Compact 電磁流量計는, 導電체가 磁界內를 횡단할 때, 그 속도에 비례한 電壓이 誘起되는 FARADAY의 電磁誘導法則을 이용해서, 외부로부터 磁界를 加하는 것으로 流體의 體積流量을 측정하는 流量計이다. 本流量計는, 最新의 Electronics 技術을 이용하여 종래의 電磁流量計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檢出器, 變換器 일체구조로 小形, 輕量化를 꾀했으며, 流量計 본래의 기능, 사용의 편리함, 경제성을 추구하고, Micom 냉장에 의한 自己診斷 機能도 갖고있다.



이의 특징으로는

- 檢出器 變換器 일체구조의 Compact 한 flange 취부방식(Orifice 취부방법과 동일)
- 外部配線工事が 용이(특수 Cable이 不要)
- 調整이 용이(Key조작으로 Range반사 가능)
- 自己診斷機能付(Micom 내장)
- 高信賴性 구조

- Digital 表示의 現場指示計付(Option)
- 耐壓防爆의 준비(安全保持器의 내장)

제 2 세대 보급형 CDP 개발, 본격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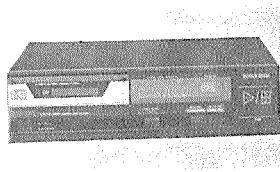
□ 三星電子(株)

TEL : 751 - 6066 (홍보실)

삼성전자는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3 번째로 기존제품의 절반가격에 불과한 제 2 세대 보급형 CDP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를 자체 개발, 본격 수출 및 국내 시판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프랑스, 스위스 등지로부터 이미 1 만대를 수출, 3 월부터 선적에 들어갔는데 신개발품이 싼 가격, 다양한 기능으로 국제 경쟁력이 뛰어난데다 CDP가 미국, 유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이를 수출 상품으로 육성, 올해 10만대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3 월말부터 기존 가격의 절반에 불과한 25만원선으로 국내 시판에도 나선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제 2 세대 CDP는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해왔던 테크, 마이컴과 특히 제조원가의 1/3을 차지하는 레이저 픽업 장치의 자체 국산화에 성공, 원가를 대폭 절감한 혁신적인 가격대의 보급형 모델이다.



이 CDP는 또 자체 개발한 마이컴을 이용함으로써 조작이 간편해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CDP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유

럽 등지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 세계 시장규모가 지난해 400만대에서 올해는 75% 늘어난 7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출 유망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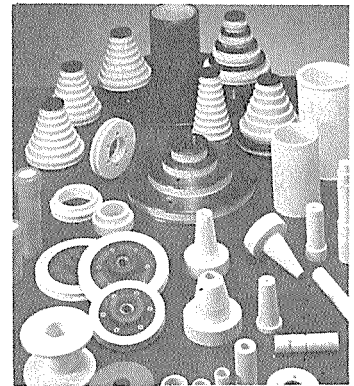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업체는 CDP 부품의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엔화 강세로 국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삼성전자가 국산 모델을 자체 개발, 수입 대체 및 원가 절감으로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량 및 국내 보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선용(伸線用) 캡스탄의 세라믹 제품

□ (株) 宣光세라믹스

TEL : 783 - 1194 / 7

전선의 신선공정은 캡스탄의 각단에 감겨 회전하는 선이 노즐을 통하여 나오면서 높은 장력(張力)으로 당겨지는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캡스탄의 표면이 일반금속일 경우 쉽게 마모되어 전선의 표면이 손상되거나 진원도가 유지되지 않는 결점의 원인이 되며, 국제 경쟁력을 잃는 품질 결함이 가장 큰 원인이 됨으로써 이제까지 수출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신제품소개

(주) 선광세라믹스(대표 송태욱)는 1984년부터 첨단 신소재에 의한 세라믹 캡스탄 및 가이드 롤러를 개발, 전선 업체에 납품함으로써 전선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수입대체에 크게 기여해 오다가 작년년부터 완전 양산체제를 갖추고 수요에 응하고 있다.

세라믹 캡스탄은 사파이어와 같은 치밀한 결정으로 기계적 강도가 다이아몬드 바로 다음 가는 경도로서 종래의 열처리 경질강, 용사제품에 비해 유사한 가격이면서 10배 이상의 수명을 갖고 있을 뿐아니라, 특수한 기계적 가공을 실시하여 표면이 매끄러우므로 마모에 의한 표면 긁힘이 없어 우수한 선질(線質)을 유지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선의 진원도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생산가능한 선의 종류도 동선, 철선, 강선, 경강선, 피아노선, 용접선, 타이어 코드선 등 모든 종류의 재료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라믹의 특성인 내화성(산, 알카리, 염수 등), 내열성(1,600℃에서도 사용가), 전기절연성 등의 장점 때문에 사용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간 보수없이 사용하므로써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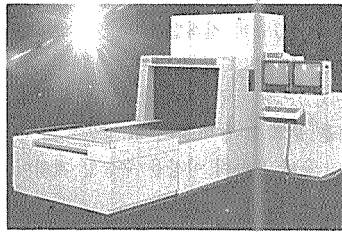
X-線透視貨物檢索機

□ (株) 中外機械

TEL : 556 - 1279

본 시스템은 2개조의 X-Ray Generator 및 수신부(Detector)를 서로 직각이 되도록 장치, 화물을 X-Ray로 주사하여 화상을 얻게 되므로 수평, 수직 2개 방향의 영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아주 얇은 부채꼴의 X-Ray 빔을 사용하므로 검색을 하더라도 일반 사진 Film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또한 X-Ray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설계하여 장비 운용자나 주위의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



〈특징〉

- (1) 출입구의 크기가 1,100mm(W)×700mm(H)로 되어있어 대형 화물도 통과가 용이하며 검사가 가능하다.
- (2) Belt Conveyor 높이는 바닥에서

600mm밖에 되지 않으므로 대형의 무거운 화물도 쉽게 Belt Conveyor에 올려놓을 수 있어 검사가 용이하다.

(3) Control Panel 및 TV monitor를 별도로 분리하여 원거리에 설치 운용이 가능하다. (최대 50m까지 가능)

(4) Photo Diode를 수신부에 채용하여 잡음을 없애주며 고도의 해상력과 우수한 화상을 얻을 수 있다.

(5) 비상정지 스위치가 출입구 양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스위치를 누르면 X-Ray의 방출 및 Belt Conveyor의 작동이 즉시 멈추게 된다.

(6) 수직방향의 화상만으로 식별이 곤란한 물건의 경우 또 하나의 수평방향의 화상으로 볼 수 있어 내용물의 식별이 용이하다. 특히, 이중바닥으로 된 가방 등의 포장으로 인하여 한쪽의 화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경우라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

(7) 연결 부위가 없는 Belt Conveyor를 사용하여 금속연결 부분이 없어 화상에 영향을 받는 일이 없다.

(8) 장비 외부 양측면에 납(鉛)유리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조명장치를 하여 화물소유자나 운용요원이 장비 내부를 통과하는 화물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다.

